

'아름다운 변신' 기대 크면 실망 크다

■ 미용 성형수술 열풍, 그 빛과 그림자

우리나라 여성들의 미용 성형수술 열풍은 기하 급수적이다. 성형수술은 자신의 외모에서 결점을 보완해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활력 있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일처럼 예뻐지겠다는 욕망에 시로잡혀 무분별하게 시술을 받다가는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외모 보상 심리 만연... 남녀노소 병행 노크
美的 관점 너무 집착하면 기능상 문제 초래
자의적 판단은 금물... 전문의와 상담 필수

바람직한 미용성형술 5계명

- ① 자하는 미용성형 수술을 권하지 않는다.
- ② 자신의 문제와 결점을 제대로 파악한다.
- ③ 남의 권유보다 스스로 수술을 결정한다.
- ④ 자의적 판단보다 의사의 의견을 따른다.
- ⑤ 절관 등 신체이상에 대해 자제히 말한다.

▲성형 신드롬=사회생활에 있어

외모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경제적 인 여유가 생기면서, 그간의 설움을 극복하겠다는 보상 심리와 다른 사람보다 예뻐보아야 한다는 경쟁 심리가 성형수술을 부추기고 있다. 의학적으로 미용 성형수술의 임상 영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신 이 번 돈을 자신에게 투자하겠다는 다분히 개인주의적 발상과,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시대적 조류가 성형수술의 발달을 초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용 성형수술의 기본은 역시 외형상의 호전 못지않은 기능적 향상이다. 기능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미용 성형수술은 잘못된 것이다. 미용 관점이 너무 집착하다 보면 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이윤호 교수는 "환자는 10번 생각해

고 1번 수술해야 하고, 의사는 3번

생각하고 1번 수술해야 한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가 성형수술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로운 경향=전로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시술의 폭이 넓어지면서 성형외과 수술의 절반이 칼을 안는 시술로 바뀌고 있다. 보톡스 등 주사를 통한 약물 투입만으로 시각적 교정도 가능해졌다. 눈, 입, 목에 교정도 지방 절제술 대신 국소주사 지방흡입이 유행한다. 최근에는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제휴해 토털 서비스를 해주는 병원이 늘고 있다.

미용 성형수술은 이제 젊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남자들이 성형수술에 빠져들고 있으며 40대 이상 중년층과 노인층까지 '살의 질 향상'을 외치는 성형수술을 받는다. 세대별로 보면 중년층은 쌍꺼풀, 대학살은 쌍꺼풀과 코, 예비직장인은 코와 흉대, 중년층은 주름살을 제거하는 보톡스 시술, 노인층은 눈 밑 주름 등을 없애주는 노안교정 등이 베스트 수술 아이템이다.

▲비율과 그림자=성형외과를 찾은 20~30%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수술 후 성격이 밝아지고 의욕적이며 활력을 되찾는다"는 한 연구 결과는 미용성형 수술의 밝은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얼굴을 과도하게 조이거나 다리근육을



미용 성형수술은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도 신중히 파악,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와 쌍꺼풀 수술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너무 많이 제거하는 등 과도한 욕심은 결국 해를 불러오게 한다.

성형수술에 대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완벽한 만족감을 얻기란 그리 쉽지 않다. 최근 의학 정보의 발달로 수술의 장단점과 방법까지도 환자들이 미리 알고 의사와 상담하는 등 환자의 과잉 자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방법을 요구한다면 의사는 환자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여대생이 유방을 확대하다 사망한 사건은 '개연성' 있는 마취사고의 하나다. 환자는 의사가 마취에 대해 확실히 물어보아야 하며 의사가도 정확히 답변해 주어야 한다. 검사상 정상이라도 인체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므로 혈압·담뇨·두통·기상 답답함 등 신체 이상과 질환에 대한 정보로 의사에 상세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미용성형 수술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의 노력이 선행되고 의사와의 전문성이 뒷받침되면서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나갈 수 있다.

박효은 기자 mahapass@hot.com.kr

쌍꺼풀 수술은 고 2~3개가 적당

■ 성형 전문의 Q&A

—성형 수술시 어떤 마음상태로 가셔야 하나.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이윤호 교수=신체는 부모님이 주신 수순이므로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얼굴 흉터를 없애는 수준에서 이제는 코성형 등 매우 적극적입니다. (02-547-0028)

—마취가 위험하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

▲서울성형외과 김원철 원장=국소 마취 상태에서 환자의 의식을 저지하는 무통 수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통증도 거의 없고 잠을 자는 듯한 기분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02-344-4333)

—여러 곳을 한꺼번에 수술해도 괜찮은가.

▲서울성형외과 박양수 원장=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차례로 하는 것이 좋다. 교수술과 쌍꺼풀을 같이 하고 싶다면 코를 먼저 하고 코의 윤곽에 맞춰 눈꺼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2-546-1615)

—남자들도 미용 성형수술을 많이 받는지.

▲신곡성 성형외과 신국선 원장=최근 몇 년 사이 남성 환자가

적어올라가고 있다. 특히 눈, 코, 턱, 목, 가슴, 유방, 손, 발, 얼굴, 흉터 등 매우 적극적입니다. (02-547-0028)

—쌍꺼풀 수술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김양수 성형외과 김양수 원장=얼굴 성형이 끝나기 전에는 눈의 크기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얼골 모양이 완전히 갖춰지는 고등학교 2~3학년 때 시술하는 것이 좋다. (02-546-042)

—남자들도 미용 성형수술을 많이 받는지.

▲신곡성 성형외과 신국선 원장=최근 몇 년 사이 남성 환자가

'작은 남성' 등직하고 세계

■ '히아루론산' 주입술

'히아루론산'을 이용한 성형수술을 주입하는 시술이 음경과 귀두를 등직하게 만들고 조루까지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의대 김재홍 교수(비뇨기과)와 연희대 비뇨기과 최태원·전병규 원장 팀은 최근 열린 비뇨기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뉴질랜드 백도 개 25마리와 실험용 개 1마리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히아루론산'을 음경의

얇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연구팀은 전신 부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6개월 때 토끼와 개의 음경·귀·간·비장을 적출하여 정상 대조군과 비교했으나 특별한 부작용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체의 모든 조직에 존재하는 천연물질인 히아루론산은 신경을 안정시켜 반응을 둔하게 하고 신경전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이다. 그동안 주로 주름살 성형에 많이 사용돼 왔으며 세계적으로 100만건 이상 시술돼 제1주입 부작용이 없음이 입증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체에 부작용이 없고 간편한 귀두 성형술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작은 남성' 문제가 희소사이다. 이 시술의 장점은 자연스러운 귀두 확대와 함께 보존력이 병과 같은 열을 해, 감각이 둔해짐으로써 조루의 효과가 있는 점이다. 그러나 2년 뒤에 주입된 히아루론산은 절반 정도 새로 보충해야 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박효은 기자

'고혈압 주간' 예방 치료 캠페인

goodday 후원 내달 5~6일 정경련회관에서 무료진단

12월 첫째 주 '고혈압 주간'을 맞아 고혈압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 goodday 후원으로 열린다.

대한고혈압학회(회장 이경관·이 사장) 이방은 다음달 5~6일 이 동안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제1회 고혈압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goodday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들에게 고혈압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확한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이방원 이사장

이방원 이사장(사진)은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질환이다. 그 심각성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 왔다"며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실시될 고혈압 주간 행사가 고혈압 발병률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주요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시민강좌가 무료로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성인의 25%가 고혈압 고혈압이고 국민의 50% 이상이 고혈압과 이로 인한 합병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02-561-3403) 박효은 기자

건강당신

▲대한간호협회

김태중 회장(사진)은 19일 저녁 소파에서 엠베서더 호텔에서 김도일 전장관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증 수상 축하연을 개최했다. (02-2279-3619)

▲한국병원의사회는 17일 단국대

병원 최진석 약제부장을 새 회장에 추대하고 정부의 '조제로 환신허' 이행을 촉구했다. (02-583-0887)

▲대한노년층학회는 19~24일 '노년층 예방주간'을 맞아 전국 56개 병원과 보건소 등에서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02-760-2875)

▲서울대병원에서는 21일 오후 3시 어린이병원에서 '전신' 건강강좌를, 22일 오후 3시 치과병원에서

무료 치아검진을 실시한다. (02-760-2875)

▲간과 담도 외과 김인규교수는 22

일 오후 3시 별관 7층에서 '복내장' 건강강좌를 갖는다. (02-2638-7863)

▲서울백병원에서는 20일 산모교실을 개최했다. (02-2270-0219)

▲꽃마음간병원은 22일 오후 2시 3층 세미나실에서 '불임치료' 건강강좌를 갖는다. (02-3475-7012)

새상품

상처 치료제 '메디움' 출시



'바이옴' (대표 박명환)은 화상·욕창·피부상처 등을 치료하고 흉터를 없애 주는 '메디움' (사진)을 일통제약 바이오 사업부를 통해 본격 판매한다. 슬프성 드레싱제인

메디움은 두께가 2~3mm로 얇고, 흡수성·투수성·방균성이 뛰어나다.

또 서울대병원 임상 결과 외국 제품보다 탁월한 상처 회복 효과를 보였다. (02-526-3489)